

대행 스님

저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뜨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전에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어요. "지구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그랗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한 예가 있거든요. 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래, 그래!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은지도 모르지." 하고선 그냥 대답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봐도 보는 것이 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듣는 것도 그렇지. 전체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우린 묘한 게 있죠. 이 듣는 것도요, 물속이나 허공이나 이 땅속이나 전부 법망이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망도 문이 있어서, 우리가 문을 정하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탁해서 없는 지역도 있고 이랬을 때는 땅속으로 공기를, 나쁜 그 오염을 내뿜기도 할 수 있고 나쁜 공기가 빠지면서 좋은 공기를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자재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발 못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니 첫째,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하고 둘째,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있거든요. 이 도리를 아는 것, 이 도리를 앎으로써 내가 자유스럽게 이 마음을, 씀씀이를 보고 용도에 따라서 차분차분히 내가 해 나가는 데는 아주 다양하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허무한 생각이 안 들어요. 허무하긴 왜 허무합니까? 뭐가 허무합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수만 가지 내는, 마음을 내는 법이 없습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내 몸이 없습니까? 왜 허무합니까? 순간순간 옷이 더러우면 벗을 뿐인데. 저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뜨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새로이 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찰나에 뜨고 한 찰나에 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찰나예요. 미륵도 한 찰나지 미륵이 따로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져서, 이미 해가 져서 다시 돌아와서 뜰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륵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한 찰나입니다. 돌고 안 돌고 이거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지어 놓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뿐이지 항상 여여하고, 항상 영원한 오늘이면서 항상 이렇게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모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고를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칼산지옥을 안 가지고 다닙니까, 오간지옥을 안 짊어지고 다닙니까? 모든 살아나온 습에 의해서 그 잠재의식에 그냥 얽히고설켜서, 카세트에 모두 감겨서 각본대로 그냥 쩍쩍쩍쩍, 구르는 대로, 도는 대로 착착착착 나오니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착착 나오는 대로 각본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오묘한 이 뜻을,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이 옷을 벗을지 그것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앞뒤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회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동시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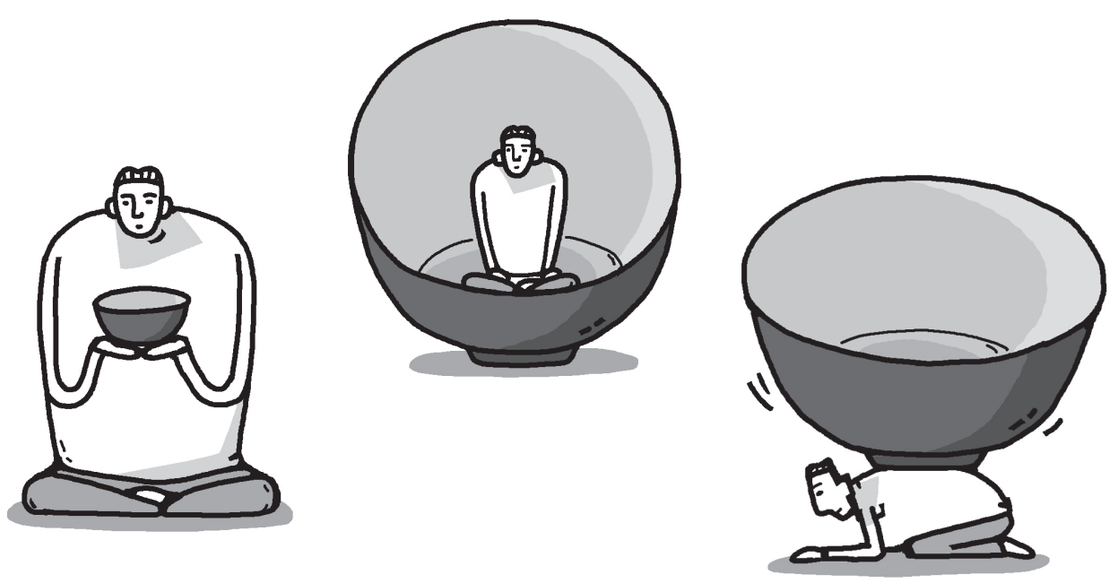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근래에 보면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큰스님들도 많이 그러시고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을 비우자는 것은 욕심을 버리자는 얘긴데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만 문밖만 나가서 물질만 딱 보면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길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지금요, 마음을 비우라 하기 이전에 아주 탕탕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모르십니까? 본래 비워져 있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가진 게 아닙니다. 비었습니다. 자기의 추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재산도 모두가. 여여하게 쓰십시오. 여여하게 사랑하고 여여하게 쓰시고 여여하게 그냥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가 되어 봤어야, 그것도 이름해서입니다. 부처가 되어 봐야 보살이 될 줄 알고 보살이 될 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참 사람이요,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신도 자기요, 보살도 자기요, 부처도 자기요, 중생도 자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 태초의 모습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이 오장육부의 세포를 타고 자기의 그 태초의 모습들이 지금 자기 속에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갖은 각색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선장으로서 한생각을 내면서 들입다 지금 여여하게 뱃놀이를 하고 가는데 "흥!" 소리는 못 지르나마, 노래는 하지 못하나마 왜 여여하게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놔라" 하기 이전에 놔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다면 지금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잔뜩 끼고 있어서 그렇지, 그건 여러분의 탓이에요. 그냥 돼 있는 건, 여기 지금 오실 때에도 그 발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 발자취는 금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왔기 때문에 없는 거지, 아마 발짝 하나 딛는 데 금은보화가, 하하하…, 10억씩 붙어 있다고 그런다면 '아휴! 한 걸음에 10억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도 돈 내는 것도 없고 돈 붙는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태연하게 그냥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실 때 신발을 내가 벗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이 들어가십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생각이 없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똥 누러 갔을 때 똥을 누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똥만 마려우면 그냥 뛰어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똥 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금 버리는 건 아깝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괴상망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나를 한번 봅니다. 돈이 백만 원이 들어왔든 천 원이 있든 그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개도 받은 예도 없고 준 예도 없습니다. 또 한 예도 없고, 여러분이 나에게 한 예도 없습니다.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집이 이렇게,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게 내 것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여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욕심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과 아내와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것은 바로 동시에 식구들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만 할 수 없으니 그냥 놓으시고 사세요, 그냥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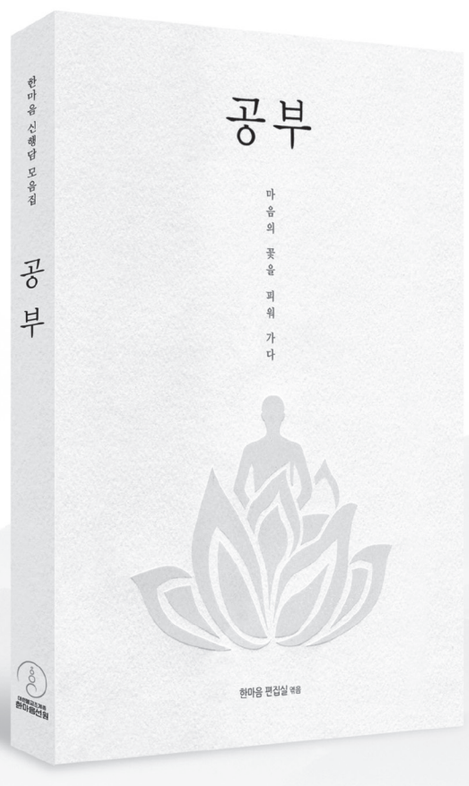
아이 글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의 몸이 자기 몸입니까? 바로 걔네들의 아버지지. 왜 자기 겁니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인의 남편이고 그 자식들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똑바로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여하게 그냥, 벌게 되면 벌고 못 벌게 되면 못 벌고 이러는 반면에 내가 그대로, 버는 것도 못 버는 것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쓸 때 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우주 천하가 다 내 거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다닙니까? 짊어지고 안 다녀도 그냥 허허지 늘어진 게 바로 나고 내 생명이고 내 것이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리를 꼭 공부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아내려면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를 낮게 생각을 합니까. 낮게 생각도 말고 높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느 신도가 아파서 누웠는데 석존을 뵙고 싶어서 무척 아프면서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도가 그 밑의 제자 스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아무 데에 사는 아무개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게 이렇게 아파서 누웠으면서도, 한 번만 뵙고선 갔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석존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가야지." 하고서 일어나서 가셨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